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는데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두루치기 유감

필자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좋아한다.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 넣고 양파·고추·파 따위와 함께 볶다가 양념한 국물을 조금 부어 끓여낸 음식을 말한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루치기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의미로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씌우거나, 또는 그런 물건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경운기 한 대를 동네 사람들이 두루치기로 몰고 다녔다"와 같이 쓴다.

다른 의미로는 '두루 미치거나 두루 해당함'이라는 뜻이 있다. 예문으로는 "학생들을 두루치기로 나무랐지만, 실상은 모임에 빠진 학생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다음으로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쓴다. 예를 들면 "태호는 농사, 운송, 집안 살림 등 못하는 것 없는 두루치기다"와 같이 쓴다.

이상을 살펴보면 두루치는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재주가 있거나,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때 사용했던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돼지고기 두루치기'에 사용된 것은 많은 재료를 섞어 넣고 함께 볶다가 양념한 국물을 넣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예는 '김치두루치기', '두부두루치기'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예문을 보자. "이 집의 김치두루치기는 자연 청정지역인 제주산 돼지고기와 목은지의 환상적인 궁합을 뽐낸다"와 같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화회 회장



스카이 View

임유희 문화팀장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 전 분기보다 한 단계 올랐다.

글로벌 투자 이민 및 시민권 통합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2025'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0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2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동률이다. 1위는 싱가포르로 193개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전 세계 199국의 무비자 협정 체결 현황을 분석해 그 나라 여권의 힘을 가능할 수 있는 '헨리 여권 지수'를 발표해 왔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 비자를 요구해 왔으나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방문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9월 29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권(passport·여행증명서)은 해외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여권 파워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인 비자(입국허가증명서)는 방문 국가와 여행 목적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나라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지만 어떤 나라에는 비자 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권은 국가를 막론하고 해외여행자라면 무조건 소지하는 게 기본이다.

여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조차 탈 수 없다. 여행지에서 여권은 현금보다 더 소중한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다간 그대로 국제



글로벌 투자 이민 및 시민권 통합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2025'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90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2위를 차지했다.

미아가 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고대 이집트에 편지 형태의 통행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한나라 때도 '전(傳)'으로 불리는 통행증이 있었다. '전'에는 신체 특징을 기록해 현대의 사진처럼 외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약성경에도 여권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느헤미야 2장 7절에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 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나온다.

450년경 페르시아 제국 시기 아르타세르세스 1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자 왕이 강 건너 땅에서도 효력이 발휘되는 문서를 작성해 준다.

근대적 의미의 여권이 시행된 때는 15세기다. 잉글랜드의 헨리 5세(1386~1422)는 1414년 자국민이 타국을 여행할 때 안전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했

다. 이후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랜드투어 때 여권이 큰 쓸모를 발휘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여권이란 게 나라마다 규격이 다르고 기록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지금만큼의 권위는 갖지 못했다.

20세기 들어 국제 여행이 빈번해지면서 보편적 여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때맞춰 사진 기술의 발달로 여권에 얼굴 사진 넣는 게 필수가 됐는데 영국인들은 이를 '비인간적 처사'로 규정했다.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도 여권이 개인의 자유를 규제한다며 분개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한때는 범죄자를 떠올렸을 때만 상상할 수 있었던 굴욕이 이제는 여행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대에 여권을 내밀고 카메라 렌즈와 눈을 맞추고 서 있으면 영락 없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이 든다.

매서운 눈초리의 심사관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

면서 '영어로' 왜 왔나, 얼마나 있을 거냐, 어디에 묵을 거냐 캐듯이 물어보면 괜히 입술이 마른다.

한국은 2020년 1월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다가 2위까지 올랐다.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간에는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적다. 또 불법 체류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유럽이라도 여권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냉전 이후 주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종교에 중립을 지켰다. 전자 여권 시스템의 도입으로 여권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도 무비자 혜택을 누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한국이 세계 2위를 찍는 동안 북한의 여권 파워는 93등에 머물러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개수도 40개국에 불과하다. 놀라운 것은 북한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저한 폐쇄 국가다.

일본은 여권 파워가 한국과 동일하지만 러시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무비자로 러시아 입국이 가능하다. 반대로 2024년 10월까지 한국은 중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본은 가능하다.

여권은 해외여행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자유로운 이동과 규제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지자를 작은 수첩 안에 가둬서 바리케이드하지 않은 국가 공동체의 재소자로 만들기도 한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 최상위 여권 파워를 누리고 있지만 이 영화가 영원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과의 외교적 불협화음과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여권 파워에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스러운 지금이다.

lye@skyedaily.com

복지의 공백이 범죄가 됐다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이상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 Talk

이유경 정치부 기자

7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이 최근 5년간 68.5% 증가했다. 전체 절도범 증가율이 1.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령층 범죄만 치솟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라 복지·고용·사법 제도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경고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상황을 치안 문제에만 취급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결국 위기는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다.

우선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3.1%의 세 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71세 이상

절도범은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늘었고 61세 이상까지 확대하면 증가율은 47.7%에 달한다.

특히 절도 장소는 주로 편의점·마트 등 생활 밀착 공간이며 절도 품목 대부분이 생필품과 소액 현금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라기보다 생존의 신호에 가깝다. 복지 제도의 미비가 곧바로 범죄 통계로 치환되는 구조다.

또한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비중은 2020년 11.2%에서 2024년 17.5%로 급등했다. 현재 5명 중 1명이 고령자다. 교정시설 1인당 연간 관리비는 약 1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감옥이 노인 복지의 대체 시설로 전락한 현실은 제도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형사 사법 체계가 사실상의 복지 인프라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범죄 증가에 대해 경찰청·법무부와 협업 체계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은 검거와 통계

관리에 머물고 복지부는 생계 지원에만 집중하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료·간병 체계 강화에 한정돼 있다.

이렇듯 재범 방지나 사전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점은 2022~2024년 고령층 절도범 증가율이 매년 △12.8% △14.2% △17.6%로 치솟는 동안 관련 예산이 4원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가는 통계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악순환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후 검거, 복지부는 빈곤 사후 지원, 법무부는 수형자 관리에 머무는 뒤늦은 대응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령층은 빈곤을 범죄로 전환하고 교정시설은 복지의 마지막 피난처로 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행정 부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개입이다. 경찰청은 고령층 절도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복지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단순 생계급여를 넘어 범죄 위험군에 대한 생활 안정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교도소 밖에서 재범을 방지할 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지자체는 고립된 고령층을 발굴·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생활 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절도범 증가율 68.5%는 범죄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복지 공백이 범죄로 변환된 결과다. 고령층 범죄는 경찰의 순찰 강화나 처벌 수위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때 범죄는 구조가 된다.

정책이 멈춘 자리에 절박함이 범죄로 번지고 있다. 감옥이 복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사회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사회다. 만약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내년 이 수치는 단순한 증가율이 아니라 국가 실패의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leeyk@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